

전주사례를 통한 국가도시 간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

백옥선 (전주문화재단 대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장)

들어가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웃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국가 간 문화교류가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목도하면서 그동안의 삶에 대한 성찰과 지구생태계와의 공존의 필요성을 깨닫는 통찰의 시간을 보냈다. 팬데믹과 우크라이나전쟁, 미·중 간의 갈등의 심화 등 세계가 직면한 다중위기 상황에서 독단적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자문화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국가 간 문화교류가 필요해 보인다. 국가도시 간 문화교류는 각국의 문화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간 갈등과 대립 관계를 완화시키고, 상호호혜적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에 문화로 이어지는 글로벌 파트너십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 도시 간의 문화접촉 기회는 깊은 유대관계의 형성은 물론이거니와 연대와 협력관계를 이끌어내 인류의 더 나은 삶과 창조적 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전주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2개의 국가도시 간 문화교류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도시 간 문화교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 사례

전주는 올해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연중 국제문화교류가 진행되고 있다. 중국의 메이저우와 청도, 일본 시즈오카현, 한국의 전주 이렇게 3개국 4개 도시가 올해의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되어 “전주 천년의 역사문화로, 하나되는 동아시아문화도시”라는 비전아래 소통, 연대, 확산, 지속이라는 4대 전략을 설정하여 한·중·일 문화교류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4월25일 공식행사를 시작으로 4개 세션의 17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동아시아 무형유산, 음식문화, 영화, 시각예술, 연극 등 3개국 4개 도시의 다양한 문화교류와 공유의 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전주선언문”은 미래세대와 지역 간 교류의 강화와 문화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3개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3개국의 협력 강화는 물론 문화교류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계기가 마련된 점은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전주문화재단에서 추진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동아시아현대미술전과 동아시아

아 예술페스티벌 사업이다. 동아시아 현대미술전은 3개국 4개 도시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현대미술작가 13명을 선정하여 한 달여 간 전시와 작가들 간의 교류행사를 진행하였다. 또한 동아시아예술페스티벌은 지난주인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전주한옥마을 일대에서 3일간 개최된 사업으로 국내·외 총 54팀의 아티스트가 대거 참여하여 주제공연, 거리공연, 대형 퍼펫 카니발, 거리예술 네트워킹, 난장 콘서트, 퍼포먼스 퍼레이드 등 실 틈 없이 벌어지는 거리예술 릴레이는 3개국 거리예술의 진수를 보여주기엔 충분했다. 재단이 직접 추진한 사업은 아니지만, 중국과 일본의 제안사업으로 추진된 청소년과 일반인 대상 포럼, 즉 동아시아문화도시 포럼, 거리예술 포럼, 청년문화포럼 등 타깃별 주제별 포럼은 그룹 토론과 발표, 교류활동 등이 병행추진 되면서 3개국 4개 도시의 공통된 현안에 대한 진지한 담론의 장 마련과 교류의 내실을 다지게 되는 성과를 도출해내고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문화도시사업은 도시 간 문화다양성에 대한 교감과 공감 그리고 공유의 시간은 물론 지방소멸이라는 위기극복과 지역 경쟁력을 위한 모색의 장으로 현재 진행중이다.

전주문화재단 x 호주 멜버른 아트플레이 교류 사례

전주문화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으로는 호주와의 문화예술교육사업이 대표적이다. 2019년에 제1회 예술놀이 국제포럼의 개최가 계기가 되어, 호주 멜버른산하 공립예술센터 아트플레이라는 기관과 2020년 업무협약을 맺고, 3년째 국제포럼 개최와 예술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21년부터는 지역예술인과 호주예술인과의 협업이 시작되었으며, 이를 통해 어린이 대상의 프로그램을 공동개발하여 콘텐츠를 배포하고 있다. 사업비 일부를 주한호주대사관 공공외교지원금을 받는 성과도 있었다. 22년과 23년에는 교류를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방식으로 예술놀이 국제포럼에 양국 예술가들의 참여는 물론 전주와 호주에서 워크숍을 개최해 학습콘텐츠 개발과 시민과 어린이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협업사업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호주 멜버른측 제안으로 전주예술인 호주파견 지원과 재단 실무자 연수를 진행했다. 전주지역작가와 재단실무자들이 2주간 호주 아트플레이 직원과 작가들과 함께 “쌍둥이도시 그림자들”이라는 디지털 예술놀이 콘텐츠를 개발을 위한 첫 워크숍을 호주에서 진행했다. 2주간의 연수 일정에는 전주와 호주 멜버른과의 교류 3년차 국제협업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한호주대사 등 내외빈들을 초청하여 진행함으로써 국제적 협력관계를 공고히 했다. 또한 전주x멜버른 예술인 협력으로 공동개발한 예술놀이 콘텐츠의 지속적인 실험과 보완과정을 위해 멜버른 어린이 대상으로 시범운영도 호주현지에서 진행됐다. 이를 계기로 전주문화재단x아트플레이 실무자 간 협업을 통한 연대와 신뢰는 강화되었고, 전주 예술인 해

외활동 지원(워크숍 전시 현지 운영)으로 지역 예술인 활동무대 또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전주문화재단 직원의 해외 현지행사 공동기획과 운영경험의 기회로 인해 국제협업 업무역량을 배양시킨 점은 큰 결실로 남았다.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도 있었는데, 호주연방정부 문화예술교류 보조금 1억원을 지원받아 25년까지 본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 25년에 아시아 최대규모 예술축제에 양국이 공동으로 개발한 결과물 발표를 목표로 공동노력 중에 있다는 점이다. 이같이 전주×멜버른 도시 간 문화교류 사례는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모델 개발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바탕으로 매년 단계적 접근을 통한 지속성과 교류기관 간의 역할분담과 협력체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는 모범적인 국제교류사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도시 간 문화예술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언

국가도시 간 문화교류는 문화 다양성과 상호호혜적 신뢰에 기초한 보편적 가치 안에서 교감과 공생의 방안을 찾아가는데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도시 간 상호 공감하는 가치를 향해 연대와 협력체계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3개국이 참여한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이 한해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교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통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해가는 플랫폼 구축이 과제로 남듯, 동시대에 안고 있는 현안과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돌파구를 찾아가는 도시 간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은 국가 간 교류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요건이다. 이를위해 문화교류 이해 당사자 간의 파트너십과 참여기회를 늘려나가려는 노력과 지속가능한 도시 간 교류와 연대를 통해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도 제시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의 다양한 가치가 발현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을 통해 축제, 교육, 포럼, 레지던시, 랩(lap) 등 여러 형태의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어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욱이 이제 문화교류는 글로벌(global)에서 글로컬(glocal)로 나아가야 도시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도시 간 교류의 활성화와 효과성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문화교류를 제도화하여 안정적 재원확보와 국제교류 전담인력의 양성은 물론 이거니와 디지털기술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국제문화교류에서도 디지털전환을 위한 플랫폼과 인프라 구축을 해나가야 한다.